

배구 '얼스 코트'는 한국 올림픽 성지

1948년 첫 출전 김성집 역도銅 경기장 여자배구 36년만에 올림픽 메달 도전

27일 개막하는 런던올림픽에서 배구 경기가 열리는 얼스 코트(Earls court)는 한국인에게 성지와도 같은 장소다. 한국의 첫 올림픽 메달이 탄생한 장소이자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희망이 쏠린 곳이다.

1948년 'KOREA'라는 국호를 달고 런던올림픽에 출전,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한국은 역도의 김성집(미들웨이트급)과 복싱의 한수안(플라이웨이트급)이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당시 김성집이 동메달을 딴 장소가 바로 얼스 코트였다. 한수안도 예선 경기를 얼스 코트에서 치른 뒤 준결승은 웬블리 아레나로 옮겨 치렀다.

김성집이 동메달을 획득한 당시 경기장의 이름은 얼스 코트 내 자리 잡은 엠프레스 홀이었다. 이곳은 올림픽이 끝난 뒤 빙상장 등으로 사용되다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 지금은 얼스 코트 전시센터 2관이 들어섰다.

1관과 2관으로 구성된 얼스 코트는 각종 전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엄청난 크기

로 설계됐다. 얼스 코트는 거대한 전시장일 뿐 아니라 런, U2, 마돈나 등 유명 가수들이 공연 장소로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배구 경기를 치르기 위해 1관은 경기장, 광대한 2관은 남녀 팀의 연습장으로 꾸렸다.

강산이 여섯번 바뀌었으나 여전히 한국인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이 36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구기 종목으로는 최초로 조국에 메달(동메달)을 안긴 여자 배구 대표팀은 올레에는 거포 김연경과 세터 김사나, 라이트 공격수 황연주·김희진, 레프트 한송이 등 베테랑과 신예의 조화를 앞세워 메달을 꼭 가져가겠다고 각오했다.

김희진 대표팀 감독은 "이곳에서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얘기는 몰랐다. 선배들의 기를 받아 우리도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은 29일 오전 4시(한국시각) 미국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26일(한국시각) 오후 런던 소벨 레저 파크 얼스 코트에서 열린 여자배구대표팀 훈련에서 김연경(왼쪽)이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지난 1948년 런던올림픽 역도에 참가한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확정하는 순간. /연합뉴스

호랑이 가을야구 윤석민·이용규에 달렸다

두 선수 컨디션 KIA 성적 좌우

'국가대표' 윤석민과 이용규의 꾸준함이 호랑이 군단의 가을을 좌우한다.

KIA를 대표하는 투수 윤석민과 톱타자 이용규는 올 시즌 극과 극의 성적으로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윤석민의 올 시즌 성적은 방어율 3.28, 5승 4패,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14개) 기록을 갈아치웠고, 두산을 상대로 개인 통산 5번째 완봉승도 장식하는 등 투수 4관왕다운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2회도 버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오는 최악의 피칭도 했다. 7월15일 삼성 원정에서 1과3분의1이닝 4실점으로 조기 강판됐고, 6월10일 사직원정에서도 3회를 끝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꾸준함과 거리가 있는 성적으로 팀내 다승 1·2위 자리를 연서니(7승)와 소사(6승)에게 내줬다.

팔꿈치 이상을 호소하며 후반기 출격이 미뤄진 윤석민은 사직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내지 못했다. 윤석민은 지난 6월 2년만의 사직 선발 등판에서 3이닝 5실점의 못매를 맞았다. 그리고 후반기 첫 등판이 미뤄지면서 다음주 예정된 롯데와의 원정경기도 건너뛰게 된다.

윤석민이 25일 훈련이 끝난 후 "이상 없었다. 바로 출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선 감독은 윤석민의 부담감을 고려해 28일 한화전에 등판시킬 방침이다. MVP 윤석민의 화려한 2012시즌을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용규도 '볼러코스터'를 타면서 KIA 타선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2010년 그리고 2011년 2년 연속 3할을 때려냈던 이용규의 올 시즌 타율은 0.260대에 머물고 있다. 병살타도 8번이나 기록했다. 이용규 스스로 "내 타율이 창피하다"고



윤석민 이용규

발할 정도다.

이용규는 "매년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타격이 살아나면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올 시즌에는 관망하였다 싶다가도 부진이 이어진다. 특별히 기술적인 부분에 변화를 준 것도 없다"며 "올 시즌 유난히 잘 맞는 타구가 야수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시즌 초반 슬라이딩을 하다가 새끼 손가락을 다치면서 배트를 뺄 때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창피한 성적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톱타자 이용규의 컨디션, 특히 첫 타석 결과에 따라서 KIA 팀 타선의 움직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용규는 25일 넥센전 첫 타석에서부터 안타와 도루를 기록했다.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지만 0-1로 뒤진 5회 1사 2루에서 두 번째 안타를 때리며 역전의 발판을 놓았다. 국가대표급 수비도 선보였다. 이용규는 8회 2사 2루에서 이택근의 큼직한 타구를 잡아내며 3-1의 승리를 지켰다.

하지만 이용규가 침묵하면 KIA의 공격도 가라앉는 모습이다.

25일까지 75경기에서 안타를 때리지 못한 경우는 27차례, 출루에 실패한 경우도 12차례 있었다.

공수의 핵심 이용규와 윤석민의 '꾸준함'이 KIA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첫 판부터 남북대결

남자탁구 단체전 ... 유승민·주세혁·오상은 출전

유남규 감독 "부담스러워"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금빛 스매싱'을 준비하는 한국 남자 탁구 선수들이 단체전 첫 판부터 남북대결을 벌이게 됐다.

한국은 25일(현지시각) 올림픽 탁구 경기장인 영국 런던의 엑셀 런던(ExCel London)에서 열린 대진추첨 결과 내일 3일 시작하는 남자 단체전에서 1회전(16강) 상대로 북한을 만나게 됐다.

남북 탁구는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맞대결을 해왔지만 올림픽 탁구 단체전에서 남북 대결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북한이 단체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한국으로서는 첫 판부터 북한과 마주치게 되면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았다. 기복이 나 혼령을 첫 경기인데 상대인 북한의 전력

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치적 이유로 더 주목받게 된 점도 걸린다.

객관적 전력상으로는 주세혁(10위), 오상은(11위), 유승민(17위) 등 '백전노장'들을 앞세운 한국이 장성만(59위), 김혁봉(77위), 김성남(181위)이 호흡을 맞추는 북한보다 한 수 위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김혁봉은 지난 4월 열린 런던 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에서 유승민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친 바 있고 장성만은 까다로운 수비형 선수다. 신예 선수인 김성남도 한국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수준 실력을 갖춘 것으로 코치진은 파악하고 있다.

유남규 대표팀 감독도 "부담스러운 첫 경기에 북한을 만나 거북한 건 사실이다. 전력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지만 북한 선수들도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기본 실력이 확실하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연합뉴스

해피니스 CC '끼워 넣기' 없는 정확한 티오프 인기

새로운 부킹문화 만들어

해피니스컨트리클럽이 정확한 티오프로 내방객들에 호응을 얻고 있다.

해피니스 CC가 일반 골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져온 '끼워 넣기' 금지로 플레이 시간 지연과 대기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 해피니스만의 부킹문화를 정립하고 있다.

프로 골퍼 출신의 유남규 대표이사(KPGA 정회원은) "다년간의 실무 경

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복 나눔, 고객 존중의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고객 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 다도면 풍산리에 위치한 해피니스 CC는 총27홀 Par 108(전장 9651m)(회원제 18홀+퍼블릭코스 9홀)규모의 골프장으로 부등산과 나주평야, 영산강을 마주하는 구릉지에 위치해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생활체육 활성화 간담회 국민생활체육회 유정복 회장이 26일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를 방문해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생활체육회는 16개 시·회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아로마라이프 북구 용봉동 1045 비엔날레정문앞 기능성 건강 보정 속옷전문 <주부시원 및 대리점 모집> 대표 김명순 ☎(010)9624-2213	태화오리탕 북구 유동 102-32 오리탕골목 흥어, 오리로스 오리탕, 오리불고기 ☎(062)529-3434	편안한침구우먼로드 중흥3동 동부시장입구 건너편 이블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대표 김향님 ☎(062)524-8737	청해진종합공사 서구 양1동 금호1차@정문앞 APT시공사. 방충망방범창,하이시시,자바라 대문,조립식건축,실내컨택이,잡철일절 ☎(062)368-5440	함양참웃담 유동 삼성병원뒤쪽 수창초교후문건너편 웃담, 웃삼계탕, 삼계탕 ☎(062)515-5757		
미소정보통신 계림동 465-1 마사회건너 휴대폰 최저가 개통 위약금, 할부금 최대 지원해드립니다. ☎(062)224-7667	동광부동산 두암동 시외버스정류장뒷편 먹지골목위 APT, 주택, 빌딩, 원룸, 상가, 각종토지, 시외권 매매및임대, 알선전문, 각종부동산컨설팅상담 대표 김명수 ☎(062)266-1441	양미리참깨국수 두암동 우산공원앞편 먹지골목 참깨국수, 콩국수, 잔치국수, 비빔국수 각종인주류 단체예약손님환영 ☎(062)266-8754	놀토PC게임 두암동 우산공원앞편 먹지골목 신규회원3만원이상 충전시 1만포인트지급 실시간배팅1%적립시스템 (주)손오공의회사, (주)초이락게임즈 ☎(010)3561-7530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에백스5층 정서지도, 정서양식, 정서장애와치유 정서교육의필요성과실행, 정서코칭훈련 회원수시모집 가정, 학교(상담환영) ☎(062)652-0675	China art Vill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405호 중국골동품, 감정경매매입, 출장감정매입 중국경매참여, 제주도 경매 대표 강대웅 ☎(062)222-6888	오치골국밥집 오치동 북부경찰서정문앞 골짜전골, 머리수육, 감자탕, 양념수육, 대문갈비 뼈해장국, 애호박찌개, 머리국, 콩나물국밥 ☎(062)266-5505
항태콩나물국밥 두암동 말부곡시장 우리병원뒤골목사거리 청해당항태콩나물국밥, 불고기, 북해기, 황태국밥 황태국밥, 돼지불고기, 황태미역국 단체예약손님환영, 포장판매가능 ☎(062)269-9889	그림그리는세상 은촌동 우미2차 호반@정문앞 현대메트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기 놀이활동 표현기법활동, 한국화, 소묘, 디자인, 기초미술 원생수시모집 ☎(062)263-7796	왕대박삼순이 남구 월산5동 1050-23번지 신우@맞은편 낙지회, 낙지볶음, 이구뽕, 병어조림, 병어초무침 웃담, 웃오리(예약주문환영) 점심특선-백반5000원 ☎(062)434-9299	맑은물천동오리 북구 두암2동사무소 정문앞 천동오리, 죽순오리전골, 오리로스, 오리탕, 춘닭 닭배기오리탕, 동태찌개, 김치찌개 닭도리탕 단체예약환영 ☎(062)268-5292	호남부동산중개인사무소 북구 두암동 KT 북광주전국취업 APT, 빌딩, 주택, 원룸, 상가, 각종토지 매매및임대, 알선, 각종부동산컨설팅 상담환영 대표 정진수 ☎(062)268-7269	상무흥어애집 서구 쌍촌동 67번지 상무시장입구 흥어애 전문점 대표 김주현 ☎(062)372-3399	자연을담다 서구 금호동 마재부영@ 버스정류장앞 천연염색, 신생아, 영유아의류전문 대표 신동길 ☎(062)655-6853
총만치킨 남구 백운동 백운휴먼시아앞 방문시 후라이드치킨(10,000) 단체주문환영 ☎(062)673-3758	덕천자동차백화점 중흥2동 해광파크맨션 101동상가 네비게이션, 센터링 블랙박스, 시트카바 ☎(062)521-2366	칼국수cafe엄마랑 금남로 문화전당 지하도상가 만남의광장 칼국수 · 커피 전문점 대표 강동원 ☎(062)234-4447	유니온비문화예술원 황금동 런던약국앞 뮤지컬 공연반 단원모집 (입시준비반, 방송출연반, 모델반) ☎(062)226-2994	대명근로자대기소 백운동 359-3 대성사거리 버스정류장앞 신·중축, APT 리모델링 조경공사전문 ☎(062)676-3003	광주방산지물 서구 능성동 320-1 서구보건소건너편 벽지, 장판, 바닥재의 모든것 대표 김창희 ☎(062)351-4989	수타면전문점칭찬 북구 각화동 각화주공@ 미래병원옆 수타짜장, 수타해물짬뽕, 수타해물우동, 짬뽕밥 해물모듬반(배창이채볶음)밥, 탕수육, 전해물, 순두부 ☎(062)262-5392